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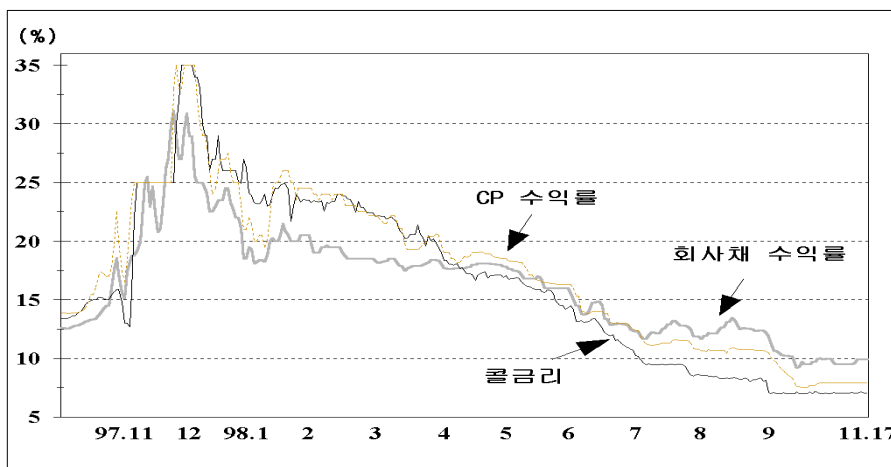
2. 증권시장 및 자금시장의 최근 동향

- (동향: 신용경색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 단기 금리가 금리 하락을 선도하는 短低長高 현상이 지속되고, 뒤이어 회사채 발행 가산금리도 하락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일반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늘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외국인 자금 유입과 함께 시중 여유 자금이 몰려 활황세를 보이고 있음
- (문제점) 은행권의 순대출 감소가 지속되고,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비해 여전히 높고 예대 금리차도 확대된 상태에 있음. 또한, 일부 대출기관이 초고금리 대출을 계속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여전히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전망과 과제) 최근 금융부문의 개선 추세가 실물 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지기 힘들 전망임.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기업 모두 재무건전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 축소지향적인 경영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임. 금융 당국은 신용경색 현상을 최소화하는 데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 은행권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앞장 서도록 해야 함

□ 최근 금융시장의 특징

- (금리 하향 안정세) 3/4분기부터 통화 당국의 뚜렷한 저금리 정책에 의해 시장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어 있음
- RP나 콜과 같은 초단기성 자금시장에서의 풍부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단기 금리가 하락세를 선도하는 短低長高 현상이 계속됨

< 최근 금리의 하락세 속 短低長高 정착화 현상 >



- (주식시장의 활력) 지난 9월부터 시장금리 하락세 속에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세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으로 시중 여유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남
- 이는 9월의 1차 금융구조조정 완료와 함께 엔화 강세까지 겹쳐 외국인의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데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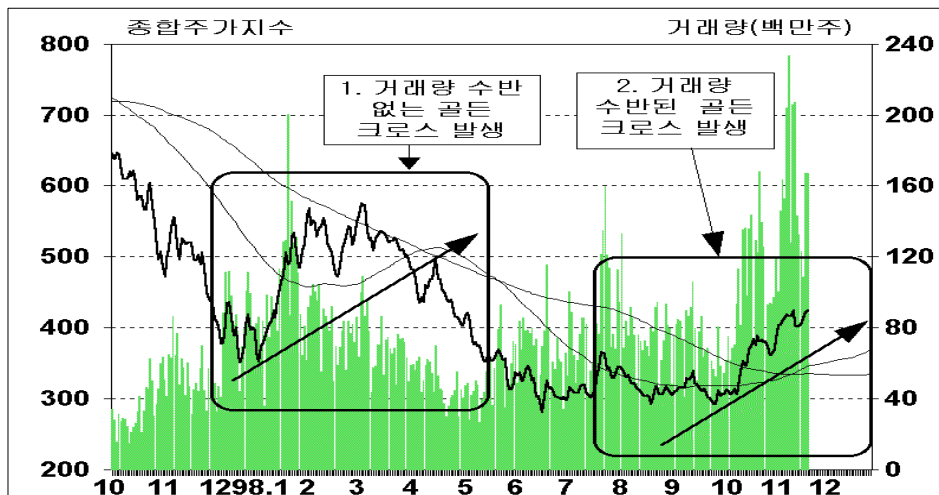
<외국인 주식 및 채권투자 추이>

(기간중, 억원)

	98년 1분기	2분기				
			6월	7월	8월	9월
주식(순매수)	44,143	-2,896	-3,332	411	-596	1,429
채권(잔액증감)	17,732	-7,986	237	-1,421	-704	-7
합계	61,875	-10,882	-3,095	-1,010	-1,300	1,422

- 주식 거래량이 10월들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고객 예탁금도 크게 늘어남으로써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음

< 활황 국면을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 최근 동향1) >



1) 골든크로스: 주가변동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右上으로 지나가는(cross) 현상을 가리키며, 통상 이 현상이 나타나면 장래에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직접금융시장의 역할 증대) 금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기업들은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집중되고 있음
- 또한, 유상증자를 통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9,10월중에 폭증세를 보임

<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 조달 추이 >

(단위: 억원)

	1996	1997	98.7	8	9	10
기업 공개	13,920	4,793	-	-	-	144
유상 증자	36,515	26,763	268	318	6,185	5,056
합 계	50,435	31,556	268	318	6,185	5,200

- (회사채 · CP 발행 기업 범위 확대) 종전에 우량 신용등급에 속하는 일부 기업들만 발행하던 것이 투자위험이 높은 투기적 등급인 **BBB-**, **BB(회사채)**, **B1** 등급이하(**CP**)의 기업들도 발행하게 됨
- 또한 발행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첨가되는 가산금리도 지난 8월까지의 4.5%에서 최근 2.5%대로 낮아짐

□ 문제점

- (은행 대출 감소) 은행들은 최근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시작하고 있으나, 기업의 신용위험이 상존함으로써 신용경색의 완전 해소로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
- 일부 파이낸스사는 아직 45%대에 달하는 초고금리 대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은행 대출 및 회사채 발행 추이1)>

(단위 : 억원)

	98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10월 ²⁾
				7월	8월	9월	
은행 대출	79,065	-48,480	-8,394	19,478	-26,231	-1,641	-23,872
회사채 발행	52,677	1,461	141,119	47,461	46,624	47,034	52,299

자료 : 한국은행, 「일일 금융시장 동향」, 각호

주 : 1) 신규 발행분에서 상환분을 차감한 순증가분, 2) 대출은 10월 24일까지, 회사채는 27일까지

- (예대금리차 확대) 은행 대출 금리가 하락세를 계속 보여 왔으나, 예대금리차는 지난 9월까지 오히려 확대되었음

- 은행의 대출금리가 9월말 연 14.25%에서 10월말 13.14%, 이어 11월 들어 13%대 까지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머지않아 12%대 진입 가능성도 있음
- 반면,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한 예대 금리차는 6월이후 크게 확대되어 9월중 5.3%p대를 보이고 있음

<예금은행의 예대 금리차 추이(신규 취급액 기준)>

(연%, %p)

	97.12	98.1	3	5	6	7	8	9
예금금리(A)	11.08	13.90	14.67	13.96	12.97	11.0	9.56	8.94
대출금리(B)	14.58	17.01	16.94	16.87	16.19	15.51	14.93	14.25
예대금리차(B-A)	3.50	3.11	2.27	2.91	3.52	4.51	5.37	5.31

자료: 한국은행

□ 향후 전망과 과제

- (재무건전성 강화의 부작용 우려) 최근 기업 구조조정이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 규제 강화와 함께 이루어지면서, 금융기관이나 기업 모두 재무건전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 축소지향적인 경영을 영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최근 금융부문의 개선 추세가 실물경제의 회복에 큰 도움을 주기 어렵고, 뒤이어 불황 지속에 따른 자산디플레이의 본격화까지 나타날 수 있을 것임
- (정책 과제) 금융 당국은 은행권 중심으로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앞장 서도록 전체적인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금융경색 현상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즉, 금융 선진화를 위해 자산건전성 규제 강화는 불가피한 반면, 대규모 부실 자산이 없이 영업을 시작하는 해외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영 효율화가 시급함

(임진국 jklim@hri.co.kr ☎724-4018, 김재철 jckim@hri.co.kr ☎724-4022)